

위기의 금호타이어...이번엔 협력업체 5곳 도급계약 해지

법인계좌 압류 이어...협력사 "도급물량 급감 경영난 악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악영향...정규직 전환 갈등 새국면 자금 묶여 대금 지급 못해 광주·전남 250여 협력사 어려워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5곳이 일제히 금호타이어 측에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법인계좌 압류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는 이번 도급계약 해지로 근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협력업체의 직원 상당수가 법인계좌 압류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금호타이어와 비정규직 노조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금호타이어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고용 승계는 이뤄질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도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영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뜻 계약하려는 업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뤄내려는 비정규직 노조가 협상수단인 '법인계좌 압류'를 쉽게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5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제2라인 4개사와 출하라인 1개사 등 협력업체 5개사가 지난달 31일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급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땐 한 달 전 미리 해지 시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이들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닌, 도급 물량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최근 수년간 금호타이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규모도 불규칙해졌고,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도급 물량이 급감해 경영난이 악화했다는 게 협력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측은 새로운 협력 업체를 찾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급 물량이 감소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금호타이어 법인계좌를 압류하고 있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지위확인 임금차액 지급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인계좌를 압류당해 운영 자금이 묶인 상태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직원은 613명으로, 임금차액은 250억원이다.

이번 압류 신청에는 414명이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차액은 204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법인계좌 압류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 임금차액 204억원을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을 인정하는 셈으로,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올해 1분기 184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분기 경영악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사무직 유급휴직과 임원들의 급여반납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에서 600여명을 당장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운영자금이 많이 묶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250여개 광주·전남 협력사가 자금난에 직면해 지역경제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새로 도급 계약을 체결할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정세군 총리,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정세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엄정면 탄방마을을 방문해 하천과 도로 유실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중낙연'과 결별...이미지 변화 시도하는 이낙연

현안마다 목소리 선명성 강화 대선 염두 캠프 외연도 확장 김부겸·박주민 지역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세력화를 넘어 정책역량 강화 및 이미지 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단 전당대회 준비 차원이지만 최근 바짝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대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다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5일 이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현역 의원 그룹은 기존 동교동·순학규계에서 친문(친문재인), 진보진영 인사 등으로 최근 외연을 크게 확장했다. 설훈,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 원조 측근 그룹 외에 친문 인사로 꼽히는 박광온, 최인호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가운데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도 이 후보를 측근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통합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홍익표 의

원은 정 의원과 함께 정책 분야에서 이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진보·개혁성향 의원 그룹인 '더좋은미래' (더미래) 소속 박완주 의원의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정책 역량 강화 및 이미지 변화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당장 권력기관 개혁 등 현안에 있어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권력기관 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매듭짓도록 민주당이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부동산 논란이 계속되는 데도,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처럼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이대로 간다면 미래보다는 과거 프레임에 갇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캠프 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메시지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전대까지는 친문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겠지만 당권을 쥔 다음에는 실질적 대선 주자로서 보다 강력한 이슈와 정책을 내놓고 미래를 견인한 변화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는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유력한 당권 후보로서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현안 대응도 보다 선명한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메시지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이날도 지역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오전에 충북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고, 김부겸 후보는 오후에 경기도 용인·성남시를 각각 찾아 경기도 기초·광역의원들을 만났다. 박주민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스타디움에서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안정적 주거권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반려견과 살지만 여전히 남의 개는 무섭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3)개조심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일하는 곳이 중외공원 구역이라 오후에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을 세 마리나 키우는 견주이면서도 여전히 남의 개는 무섭고 공포스럽다. 산책 나온 개가 아무리 짹 짹 물어오면 "살려라"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달아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들리는 말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달아나는 네 모습이 더 무섭다"는 표정이

입한다. 최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1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제화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나운 개는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했던 모양이다. 폼페이 유적 발굴 때 세상에 나온 모자이크 작품 '개조심' (기원전 1세기 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경고판과 같다. 어느 시대이나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해 대문에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경고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모자이크는 채색 벽화로 구성되었는데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흰색 바탕에 검은 색으로 개의 형태를 만들고 목줄과 개의 혀바닥은 붉은 색 등을 써서 생동감과 사나움을 강조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우리를 향해 짖을 것처럼 공격적인 태세다.

이 같은 '개조심' 모자이크 외에도 로마시대 대저택의 바닥에는 비슷한 모자이크가 있었는데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시대였던 만큼 경고 표시도 예술적인 것 같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